



# HOLY MISSION STORY 거룩한 사명

▶ 거룩한선교이야기 · HolyMStory



세계선교사연합회  
The World Missionary Federation

Holy Mission Story • 3400 W. 6th St. #202 Los Angeles, CA 90020 • T. (213)559-7500 • info@holymstory.com

제2호 | 2024년 12월 15일

www.holymstory.com

생활선교·경제공동체·IT선교

## ‘거룩한선교이야기’ 창립 노벨문학상 축하의 밤



11월 10일 (주일) 오후 5시 LA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Holy Mission Story 대강당에서 각계각층의 귀빈들을 모시고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고 ‘거룩한선교이야기’의 창립 및 창간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서는 작가 한강의 기여와 그의 작품에 대한 여러 발표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그의 문학적 성취가 우리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나누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또한 새로운 신문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함께 편집진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신문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이러한 행사가 미주 한인 사회의 문화와 언론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자리를 채우고 저마다의 소감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운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LA민주진보단체연합  
계엄반대 윤석열 탄핵 촉구 (10면)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실태 보고서** (2면)

**‘USA 미래포럼’  
희망을 이야기하다** (7면)

사 언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17:17)
사 호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사명선언문
진리 수호의 사명을 다한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한다. 선함 추구의 사명을 다한다. 교회 세움의 사명을 다한다. 차세대 선교 사명을 다한다.

차 례
종합 뉴스 P.1
교계 특집 P.2
교계 특집 P.3
사설 / 칼럼 P.4
복음 / 설교 P.5
선교 / 교회 P.6
사회 특집 P.7
사회 특집 P.8
자연 / 환경 P.9
정치 / 경제 P.10
사회 / 교육 P.11
문화 / 예술 P.12
생활 / 건강 P.13

**Emmanuel University**  
Academic Program  
Master of Divinity (M.Div) 목회학 석사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기독교 상담학 석사  
Doctor of Christian Counseling 기독교 상담학 박사  
전학 및 입학 상담, SEVIS I-20  
www.emmanueluniversity.org  
3400 W. 6th St. #200, Los Angeles, CA 90020  
213-674-7850  
emmanuelu314@gmail.com

**Galilee School of Theology**  
갈릴리 신학 대학원  
Master of Divinity (M.Div) - 목회학 석사  
Master of Sacred Theology (STM) - 신학석사  
Doctor of Sacred Theology (STD) - 신학박사  
신입생 입학 및 전학 가능, SEVIS (I-20) 인가  
www.gstia.com/gstlaca@gmail.com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255 S. Hill St. #401, Los Angeles, CA 90012

**축성탄**  
**나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울 목사  
213-550-7377  
255 S. Hill St. #401 LA, CA 90012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실태 보고서

## 1. 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3개인 것처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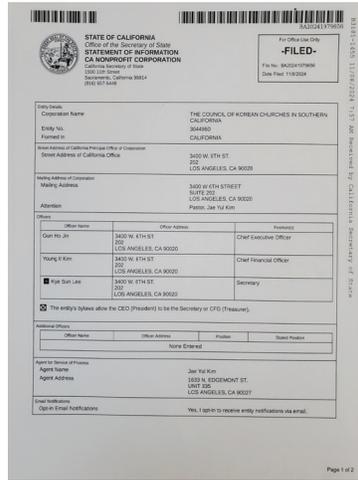
현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협)가 3개로 분영되어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첫째는 원래의 정관과 상임이사회를 가지고 운영되는 교협이 있다. 이 교협의 대표는 진건호 목사이다.

둘째는 상임이사회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정관을 가지고 교협 행세를 하는 제2의 단체가 있다. 여기의 대표는 최영봉 목사이고, 다음 대표를 하겠다는 이는 샘 신 목사이다.

셋째는 또 다른 정관을 가지고 교협 행세를 하는 제3의 단체가 있는데, 그 대표는 정관위반으로 징계를 받아 퇴출된 전동석 목사이다. 거기에서 회장을 하겠다는 이가 크리스찬비전 신문사의 이정현 목사이다.

그러나 55년 전통의 정통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바로 진건호 목사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1970년부터 55년간 합법적으로 개정되어 유지된 정관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며, 종교개혁 500주년 전해인 2016년부터 상임이사회를 두고 협회를 운영해 온 교협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IRS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로 등록된 유일한 비영리단체이다. (참조 1. 현 주정부 등록)



## 2. 제2의 단체(최영봉, 샘신 측)가 불법 단체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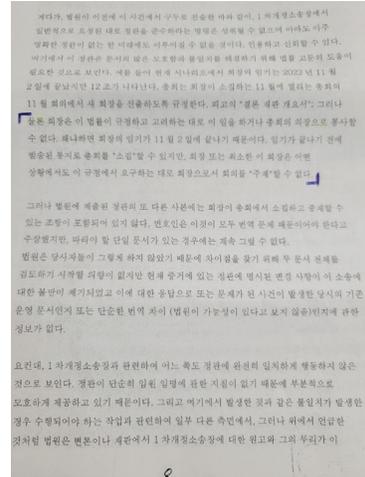
1) 지난 2021년 11월 2일 총회에서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피선된 김용준과 홍석배의 임원선임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자체 치리 기관인 상임이사회에 의해 2021년 11월 26일 정관위반으로 영구 제명된 김용준 목사, 정완기 목사와 함께 제명된 최영봉 목사이기 때문이다.

2) 위 치리에도 불복하고 김용준 목사가 회장취임을 강행하였으며, 이에 상임이사회에서 김용준 측(김용준, 최영봉, 정완기)을 불법으로 소송하였다. 이에 김용준 측이 맞고소와 2022년 6월 TRO까지 신청하였으나 2년 모두 기각하였고, 상임이사회의 소송만 진행되었다.

3) 교협의 상임이사회가 소송한 건은 2022년 9월 19일 재판하여 11월 10일 판결하였다. 판결문에는 김용준 회장이 1년 임기일인, 2022년 11월 2일

이 지난 관계로 그 어떤 행위도 교협에 할 수 없음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총회를 소집하였다. 법원 판결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장관은 11월에 열리는 총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회장은 법률이 규정하는 대로 이 일을 하거나 총회의 의장으로 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회장의 임기가 11월 2일에 끝나기 때문이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발송된 통지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회장 또는 최소한 이 회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회장으로서 회의를 "주제"할 수 없다. (참조 2. 판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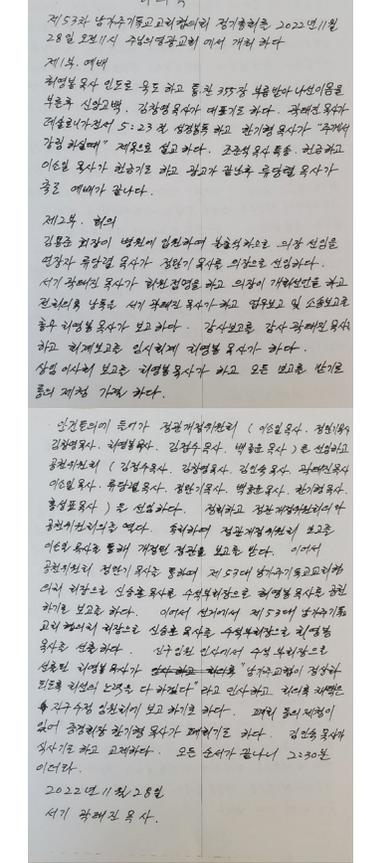


1) 김용준 측은 무자격자로서 총회를 소집했을 뿐만 아니라 총회 20일전 공고 규정도 위반하는 불법 총회를 소집하였다. (2022년 11월 14일 공고, 11월 28일 총회 → 20일 공고 규정인 정관 제12조 4항 위반)

2) 정작 총회에는 의장직을 수행해야 하는 회장(김용준)은 불출석하고, 상임이사도 아니며 제명된 최영봉 목사가 상임이사회 보고를 허위로 하

고, 정관개정위원회 선임과 공천위원회 선임도 모두 정관규정을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정관개정 제45조 / 공천위원회 제19조 위반)

## 참조 3. 최영봉측 불법 총회록



(3) 불법으로 소집된 총회에서 불법으로 정관(상임이사회가 없는 정관)을 개정하여 그 불법 정관을 가지고 또다른 교협을 운영하며 남가주 한인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4) 불법 총회는 서류심사도 없는 공천으로 회장에 신승훈 목사, 수석부회장에 최영봉 목사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신승훈 목사는 회장선출에 대하여 "나는 모르는 일이다. Statement of Information을 주정부에 자신이 등록하거나 원래의 임원진을 바꾼 적도 없다" 고한다. (최영봉 측에서 불법으로 2023년 1월 23일 법원에

Statement of Information을 바꾸어 Report 했다.)

5) 2023년 4월 30일, 갑자기 또 다른 총회도 없이, 신승훈 목사는 빠지고, 김용준과 최영봉이 불법으로 '회장 이취임식'을 하였다.

4) 이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는 다시 소송을 결의하고 2023년 6월 19일 소송 1건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저들의 불법을 증거와 함께 제출했으며, 김용준 목사와 최영봉 목사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의 회장이 될 수 없음과 본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의 '명기도용 금지명령'을 하여 주기를 법원에 요청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3. 제3의 단체(전동석, 이정현 측)가 불법단체인 이유

1) 전동석 목사는 지난 2023년 11월 11일 총회에서 위임된 상임이사회의 수석부회장 선임의 건을 부정하고, 회원 간의 불화를 조성하여 결의사항 불이행 등 정관위반으로 2024년 8월 26일 정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영구제명의 징계를 받은 자이다. (참조4. 징계 통지서) 2) 따라서 징계 이후

에 소집된 모든 임원회, 임시총회, 정기총회 등 모든 것이 불법이다.

3) 또한 정당한 자격과 절차도 없이 진행된, 임시총회의 상임이사회 없는 정관수정도 불법이며, 다른 단체가 된 것이다. 4) 그러므로 2024년 11월 1일 소집된 불법 총회에서 선출하였다는 이정현 회장도 불법이다.

4. 진건호 목사가 회장인 체제만이 유일한 정통 교협이다.

교협은 불법을 행한 김용준 목사를 치리하고 법적조치한 후, 다시 정관에 따라 2021년 12월 27일 상임이사회 총회를 열어 8명으로 상임이사회를 새로이 구성했고, 2021년 11월 26일 상임이사회에서 행했던 치리를 다시 결의했으며, 홍석배 수석대행체제로 교협을 운영해 왔다.

소송 중에도 계속적인 화해를 위한 미팅을 시도했으나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2022년 6월 29일에는 임시총회를 통해 조병국 목사를 52대 회장으로 선출하여 그 사명을 다하여 왔다. 이 임시총회를 막으려고, 김용준 측이 TRO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임시총회를 통해 조병국

목사를 새 회장으로 세웠다. 2022년 9월 19일 법원에서 재판이 있었고, 판사의 조언에 따라 2022년 11월 10일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교협은 정관에 따라 정관개정위원회와 공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 10월 14일 신문에 공고하고 10월 29일 정관개정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공천위원회도 최종 11월 3일 확정하여, 2022년 11월 5일 총회에서 새 정관을 확정하였고, 조병국 목사를 53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취임식과 사랑의 쌀 나눔과 선교사 동행의 밤, 세계선교사연합회와 차세대를 세우는 일에 동역하고, 부활절 연합예배 등 교협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다.

그런데 최영봉 측은 2023년 4월 30일, 선출했다는 회장 신승훈 목사는 나타나지 않고, 엉뚱하게 최영봉 목사가 회장이라고 이취임식을 거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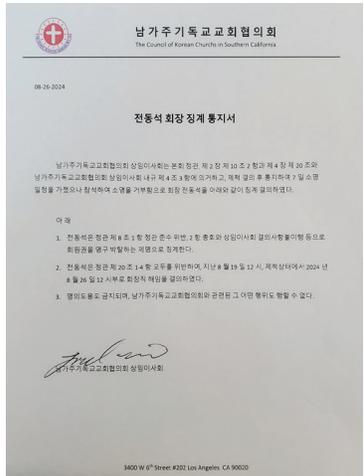
교협 임원진과 상임이사회는 최영봉 측의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결의하여, 2023년 6월 19일 소송을 진행하고 현재 최영봉 측(최영봉, 김용준, 정완기)과 재

판 중이다. 또한, 지난 2024년 8월 26일 징계를 받은 전동석 측도, 만일 이정현 목사가 회장으로 취임하는 순간 소송을 결의하여 진행할 것이며, 상식과 정의의 가치를 중하게 여기는 모든 교회와 함께 모든 불법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선포 할 것이다.

교협은 2024년 11월 2일 총회를 통해 선출된 진건호 회장을 중심으로, 교회를 위한 교협, 미래세대를 위한 교협, 영성훈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교협, 말씀에 청종하는 정직성을 회복하는 진실한 공동체적 교협으로 거듭날 것이다.

2017년 모든 절차가 정관에 의해 행해진 상임이사회가 있는 정관을 가지고 주정부와 IRS에 등록된 법통을 가진 진건호 회장 체제만이 55년 전통을 이어가는 유일한 정통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며, 그 이외의 단체는 교협의 이름을 도용한 불법 단체임을 밝힌다.

법적사항과 참조, 문의: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상임이사회



## 오용된 ‘은혜’의 폐해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였다.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공로로 구원받고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다고 선포한 것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서 출발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으로 종결된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이다.

그러나 은혜를 인간관계의 감정선에서 오용하는 현실을 본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흔히 ‘은혜받았다’라고 말한다. 설교자에게는 칭찬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예배자의 자세는 아니다. 예배자는 은혜받으려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예물로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또한 ‘은혜롭게 하자’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말을 혹자들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의 마음쯤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부정이나 불법이라도 눈감아주고 대충 넘어가자’는 심리가 녹아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교협) 사태를 지켜보면서 교회 안에서 ‘오용된 은혜의 폐해’를 절감한다.**

교협이 3개로 나뉘어 교계뿐만 아니라 한인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 당사자들조차도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증경회장이라 불리우기를 좋아하는 전직 회장들은 “은혜롭게 해결하세요”라는 거룩한 말로 본질을 흐리게 한다. 한 원로 목사는 “누구의 자 잘

못을 따지지 말고 연합하라”고 권면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격이다. 어떤 목사는 “마음을 합해서(은혜스럽게?) 이번엔 신 목사가 내년에는 진 목사가 그 후에는 이 목사가 회장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회장 나뉘 먹기를 주문하기까지 한다. 한편에 선 어떤 목사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들먹이며 순교자 코스프레로 상대측을 악마화하는데, 사실은 자신의 눈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한 마디로 ‘은혜가 넘쳐나는데, 문제는 더 꼬이고 있다.

“달을 보기 위해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 이 말은 ‘견월망지’라는 고사성어로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견월망지’의 교훈은 “진실을 흐리게 하는 말과 행동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교협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현재 3개로 나누어진 교협은 모두 다른 정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같은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별개의 단체이며,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한 이 중 2개는 불법단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협 문제의 핵심은 ‘합법적 정통성’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조직에서는 합리적인 규칙 즉, 창립부터 이어온 정관이나 회칙에 의해 합법적인 선거로 선출된 리더만이 그 정통성을 부여받는다. 정관을 위반하여 퇴출되었거나 정관을 무시하고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정관을 자의로 개정하는 것은 모두 불법 행위이다.

미국에서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는 주 정부에 등록하고 IRS에 신고하여 그 법적 지위를 획득한다. 이 또한 ‘합법적 정통성’을 가지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이것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다. 이런 단순한 것조차 확인하지 않고 친분관계를 따라 줄을 서거나, 아니면 명예를 탐하는 자들이라고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 또한 지혜롭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를 증폭시키는 처사이다.

예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진노하심은 그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이었다. ‘합법적 정통성’을 무시하고 “전직 회장들이 우리 편이다”, “우리 측은 큰 교회 목사들이 지지한다”, “우리는 한국 교계와 교류한다” 등으로 정당성을 내세우는 것은, 마치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몸부림과 다를 바 없다.

‘은혜롭게 해결하자’가 문제해결의 답이라면 한국 개신교 교단의 숫자가 374개로 분파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관을 위반하고 법원의 판결마저도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자나 집단을 교계가 ‘은혜’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허용한다면, 나아가 악의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는 계속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

‘은혜’가 더 이상 세상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부지불식 간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부정’과 ‘불법’을 ‘은혜’와 바꾸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편집장 Joshua Chung〉

##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미국 선교사 스탠리 존스(Stanley Jones)는 인도에서 50년 넘도록 복음사역을 위해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는 감리교 선교사이자 미국 볼티모어에서 출생하였으며 애즈버리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스탠리 존스는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는 동안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였다. 그러므로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와 생활양식을 기준으로 종교나 문화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고 조용히 실천하였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를 성자로 추앙하고 있다.

스탠리 존스는 선교 말년 87세 때 선교지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지가 마비되는 끔찍한 상황을 만났다. 그는 미국 보스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된다. 그때 치료를 받으며 자기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일일이 다음과 같이 외쳐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쳐 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러자 의사들은 그의 말을 듣고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는 베드로나 요한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외칠 수가 있습니까?라며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스탠리 존스는 계속해서 강권하였다. 그러자 의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볼 때마다 그가 가르쳐 준대로 외쳤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마다 스탠리 존스는 침상에서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

스탠리 존스는 간호사들에게까지도 똑같은 부탁을 했다. 그러자 병원 안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스탠리 존스를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마다 스탠리 존스는 누워서 ‘아멘’이라고 대답하였다.

얼마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입원 6개월 만에 완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병원에 들어올 때는 들것에 실려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자기의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서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여 선교지로 다시금 돌아갔다. 그리고 1973년 88세에 인도 바레일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선교의 사명에 충성을 다했다.

87세의 노년에 사지가 마비된 뇌졸중 환자가 어떻게 그 병에서 완쾌될 수 있었던 것일까? 확실한 것은 믿음의 힘이었다. 그렇다. 스탠리 존스는 치료하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의술보다 믿음의 선언을 하도록 간청했던 것이다.

믿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신앙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다. 믿음의 본질은 죄에서의 구원이요, 영생의 약속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



예벳선교회 대표  
홍성관 목사

던 것이 믿음이었다. 믿음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로 전환하여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믿음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 변화된 신분으로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된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자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삶을 통해 그 믿음을 확증한다. 확증하는 믿음이 산 믿음이요 산 믿음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결과를 나타내 준다.

막 9: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축” 성탄

UGN복음방송

www.iugn.net

4055 Wilshire Blvd. #352  
Los Angeles, CA 90010  
213-700-2891

“축” 성탄

Good Morning  
USA NEWS

goodmorningusanews.com

7035 Orangethorpe Ave. #H  
Buena Park, CA 90521  
714-745-2838

College Prep Portfolio & Consulting

INART

www.inarteducation.com

Main Office 323-889-9900  
Main Branch 213-808-9481  
La Crescenta 818-488-4385  
The Source OC 213-364-6640

# Hope and Happiness for Tomorrow

## ‘사랑의 담요 나누기’ 콘서트



예수사랑세계선교회(조병국 목사)는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진건호 목사)와 공동으로 ‘사랑의 담요 나누기 콘서트’를 가졌다. 2024년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LA 다운타운 글라디스 파크(806 E. 6th St. LA, CA)에서 선교회원들과 교협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봉사활동을 펼쳤다.

제1부 행사 예매는 조병국 목사의 개식사, 김석영 소프라노의 국가 연주, 김재율 목사의 기도, 우디 로빈슨 목사의 설교, 진건호 목사의 축사, 김태호 박사와 서사라목사의 격려사가 있었다.

제2부 순서는 헤세드 공연팀이 노래와 춤과 악기 연주를 통해 연말 연시를 맞아 홈리스 피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선교회는 담요와 침낭, 양말과 겨울모자, 그리고 마스크와 세네타이저 등을 나누어 주었으며,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였다.

예수사랑세계선교회는 25년간 다운타운의 노숙자들에게 긍휼선교를 하고 있다.

기독교 세계 최고의 성지인 예루살렘의 올드 시티는 성곽의 내부를 뜻하는데, 성문을 중심으로 동편으로는 감람산이, 서편으로는 시온산이 있고, 이 시온산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The Last Supper)’을 하셨던 매우 소중한 성지다.

마가의 다락방은 시온 문에서 바깥쪽으로 약 100m 거리에 있는 2층으로 된 석조건물이고, 이때 한글 번역에는 ‘다락방’이라고 명칭이 붙었지만, 좁디좁은 협소한 다락방이 아니라 120여 명이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넓은 홀인 2층 전체를 말한다. 홀에 들어서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함께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상황(요 13:4~5)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시나클룸(Cenaculum, 식당)이라고도 불리는 ‘마가의

## 마가의 다락방 성지순례

다락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곳에 오신 적이 있고 승천한 후, 가롯 유다 대신 맛디아(Matthias)를 제자로 선출한 장소이자(행 1:12-26),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여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려왔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여 복음의 불씨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간 ‘오순절 성령강림’이 임하셨던 매우 성스러운 장소이다.(행 2:1-3).

시온산의 경사면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통곡했던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다. 이곳은 당시 예수님을 고소했던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터인데, 교회 침탑에는 수탉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을 상징하는 수탉 모형이 붙여져 있다. 통곡의 교회 전망대 정면

는 감람산이 보이고 아래쪽에는 힌놈(Hinnom:지명)의 아 들 골짜기가 보이는데, 그곳이 가롯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한 ‘아겔다마’이다.(행 1:19) 교회 내부로 들어가면 지하 2층에 굴처럼 큰 구멍이 나오는데, 이곳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서기까지 결박당하시고 고문을 받으셨던 장소이다. 예수님을 밧줄로 달아 구멍으로 내렸고 발을 땅에 대지 못하게 매달아 놔다고 한다.(막 14:62, 65) 예수님께서 공중에 참혹한 모습으로 매달려 계셨을 것을 생각하면 숙연해지고 눈물이 앞을 가려 차마 그 안을 들여다 볼 수도 없는 심정이 되어 버린다.

베드로 통곡교회 뒤편으로 가면 2,000년 전에 위 도시와 아래 도시를 연결하는 로마시대의 돌계단이 있다. 이 계단은 예수님께서 겿세마네로 이

동하셨을 때와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셨을 때 오르셨다고 하는 ‘거룩한 계단’이다.

또한 ‘십자가의 길(비야 돌로로사)’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다시 가야바의 통곡의 교회 지하에 빛이 한 줄기도 새지 않는 캄캄한 동굴 감옥에 묶여 계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끌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던 약 600m 정도의 이동 경로를 말한다.

‘십자가의 길’ 앞에 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희생을 통해 신의 아들이자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기꺼이 승고한 죽음의 길을 택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한다.

# USA 미래포럼' 희망을 이야기하다

LA 민주 진보 단체 연합의 2024년 송년회 및 USA 미래포럼 행사는 '미국 대선 결과 분석 과 향후 전망 및 대안'이라는 주제 아래 '거룩한 선교 이야기' 대강당(3400 W. 6th st, #202, LA, CA 90020)에서 12월 3일 저녁 6시에 각 단체장들과 내빈들 70여 명을 모시고 열린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먼저 거룩한선교이야기의 편집장 정성업 박사가 행사의 진행을 맡아 어제 아침에 벌여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해제된 데에 대한 다행스

러움을 첫 인사로 말문을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재울 박사는 제 47대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민주당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첫째, 인종 문제로 보고 백인우월주의, 성별문제, 라푼갈등을 지적했다. 두 번째는 경제문제로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인플레이션, 세금과 중산층화 전략, 경제정의와 복지를 문제 삼았다. 셋째는 이민문제로서 불법이민자, 외교(전쟁), 범죄자 문제 무대책. 넷째는 교육문제로서 경제교육, 언론을 통한 교육, 알

고리즘을 신개념 교육적 요소를, 다섯째 종교문제로 카테고리 나누어 민주당의 시행착오를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은 각 문제의 심각성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조명하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상승이 일반 시민들에게 미친 영향에 중점을 두었다.

이어 분석에 대하여 재미한 국노인회 박건우 회장은 이번 대선은 트럼프와 머스크의 결합으로 트럼프가 당선에 성공했지만, 그 둘의 밀월관계는 오래 가지 않고, 트럼프가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면 계속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안

태형 박사는 트럼프가 제시한 외교 전략에 따른 관세 인상으로 미국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미국 내 산업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며, 특히 특정 산업에 대한 압박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론의 마지막 연사로 나선 글로벌블레싱미션 대표 송영우 박사는 앞으로 대안과 전망을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는 미국 정치의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을 제시했다.

## 미대선 결과 분석과 전망 및 대안 (미국의 정체성)

### 민주당의 패배 원인을 중심으로

발제자: 김재울 박사(이민사회변화연구소 소장)

민주당 패배의 원인을 살펴보면

#### 1. 인종

1) 백인우월주의  
미국 내 백인은 75%, 흑인 12.3%, 라틴계 9%, 아시안 3.6, 인디언 0.9% 분포이다. 백인 중 타 인종에 대한 차별 의식을 가진 수가 얼마인가? 가 승패를 갈랐다. 마지막 1주, 잘난 흑인 오바마 부부의 등장은 화이트 트럼프 재등장을 도왔다.

2) 성별문제  
백인 여성이며, 최고의 대통령 중 한 명인 빌 클린턴의 부

인, 힐러리 클린턴도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후임 대통령 선거 때에 트럼프에게 졌다. 그런데 너무 늦은 바이든 중도 포기 후 유일한 대안으로 뽑은 후보가 흑인 아시안 여성 후보 해리스였다. 이겼다면, 그녀의 상징성이 미국의 정체성에 도움이 되었겠지만, 백인 남성들 뿐 아니라 라틴계, 더구나 흑인 남성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라-흑의 갈등  
LA 4.29 폭동(계층 간의 갈등의 분출구)도 그러하듯, 계층 간의 갈등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백인 지배층의 전략이

통했다. 사회 밑바닥층의 밥그릇 싸움을 이용한 것이다. 기존의 흑인들이 자신들의 밥그릇 상대로 초기엔 아시안계로, 이제는 라틴계로 삼게 한 것이다. 이에 라틴계의 트럼프 지지가 두드러졌다.

→ 인종화합도 중요하지만, 백인 저소득층에 관심하여야 한다.

#### 2. 경제

1) 중국과의 무역전쟁(인플레이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빌 클린턴의 승리공식을 놓쳤다. 트럼프가 '오바마 지우기' 했

던 것처럼 바이든이 '트럼프 지우기' 차원에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끝내고, 물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해야 했다. 생필품의 80%를 중국제로 잠식된 미국의 내수 경기라면, 더더욱 적어도 국내생산업 육성과 더불어 양면 전략을 구사했어야 했다.

→ 관세를 통한 고립주의는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

2) 세금과 중산층화 전략  
중산층의 세금 감면과 대기업과 자본,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등에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가시적 조치가 필요했다. 금리 또한 부동산 모기지과 소

규모사업용자에 대한 탄력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 3) 경제정의와 복지

거대자본의 독점을 법률로 제어하여 경쟁의 공정성 확보와 경제 양극화 해소 방안은 절대적이었고, 의료혜택이나 일하는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을 더 확대했어야 했다.

## 3. 이민 (세계속의 미국의 정체성)

### 1) 불법이민자

(불체자 문제 (카라반))

반 이민 정책이 트럼프의 정책이었다. 합법적 미국 사회의 적응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 이민 문호를 열고, '서류 미비자와 자기 나라에 부적응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미국민의 보편적 입장을 너무 안이하게 보았다. 부자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여 지지를 이끌어 내는 전략은 의문이다.

→ 반이민, 불체자 추방은 미국 내 생산성을 많이 떨어뜨릴 것이다.(농업, 건축업, 서비스업 순...)

### 2) 외교(전쟁)

인플레이션의 외부요인이 된 \*우크라이나 전쟁(곡물가)과 중동 전쟁(유가)을 대선 전 휴전으로라도 멈추게 했어야 했다. '이익이 없는 동맹은 필요 없다'. 세계 경찰국가와 민주주의 수호국의 지위와 정체성을 포기하고, 미국 우선주의로 새로운 제국주의를 표방한 트럼프에 미국민은 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 세계적인 나르시즘의 광풍이 낳은 파시즘(전체주의/카리스마)의 광풍이 분다. 이것은 바른 인간상이나 사회상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트럼프의 1차 하원 탄핵의 원인이었다.)

### 3) 범죄자

불법 이민자(체류자)와 범죄자의 연결은 내재된 폭력적 백인우월주의의 좋은 포장이었요 대체재였다. 더구나 노동자 계층에는 끝없는 무한 경쟁을 야기하는 것으로 남미 라틴계를 보게 했고, 이민자였던 라틴계 투표권자에게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 4. 교육 (백인간의 갈등 +)

### 1) 교육과 경제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지원정당을 지지하는지를 알게 됐다.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백인 노동자 계층의 반란이라고 한다. 반란이 아니라 매스 미디어의 주 고객층으로 이슈나 현상에 민감성을 가진 계층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후보'와 공감력의 증대였다. 엘리트 지도자에 대한 반감은 자격지심이라는 저 깊은 심연(내면) 쓴 뿌리와 맞닿아 있다. → 미국에서의 교육은 경제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고등교육과 좋은 대학은 돈 없이 불가능하다.

2) 교육의 도구로서의 언론 (FOX)

가난한 사람들의 교육 현장은 어디일까? 바로 언론이다. 깊은 통찰을 필요치않는현상에 대한 인식도 분석력 없이 받아들여지게 하는언론들이다. 특히 알고리즘 기반의 개인 소셜 미디어 소비층에게는 매우 유용한 교육의 도구가 바로 언론이 된다. 이에 진영논리와 이념적 혹은 기호적 편향성은 더더욱 올바른 혹은 균형 잡힌 선택을 어렵게 한다. (민주당의 대 언론 선거자금 이 트럼프의 3배)

### 3) 알고리즘

미국민에겐 우물 안의 개구리들로 충분하다. 알고리즘은 상업적이며 동시에 심리적으로 '확증편향증'이라는 신종 정신 분열에 가까운 증상을 양산한다. 현혹과 선동의 도구가 된다

→ 트럼프즘에 대한 사회 혼란의 공포에 여성 후보로는 '엘리트는 아닌데 카리스마(통솔력)가 있는 후보'로 인식되지 못한다.

## 5. 종교

### 1) 기독교의 위기

기독교에 차세대 젊은이들이 없다. 역 개종이 일어나고, 기독교인이 2030년에는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한다. 이 원인이 보수기독교의 정파적 성향인데 오히려 심화되어 간다.

### 2) 보수기독교의 권력화 (이념화)

이념의 노골화가 조직화 되어 가고, 맹목적 지지로 이어져,

권력을 탐하는 기독교가 되었다. (MAGA/2025 plan) → 트럼프를 메시야로 본다.

### 3) 차세대의 종교로서의 스포츠 (격투기, UFC, 레슬링 쇼)

대체 종교로서 기능을 하는 스포츠를 활용한다. 가상현실을 접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뿐 아니라, 무교육 백인들에게 그리고, 물질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선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 ● 문화전쟁(PC)

정치적 올바름과 언어의 고상함 교육(대학)은 진보/사회는 보수 나르시즘의 광풍이 낳은 전체주의 물결(카리스마)표가 다 옳은 것이 아니다. 부당한 것에는 바로잡기 위한 싸움이 필요하다. 이익이 있으면 선이고, 이익이 없으면 악인 가치관은 안된다.

● 여론조사 기법이 주는 교훈 Money Market. 객관화된 질문, 1시간 이상의 주제 대화 등이 기법은 모두 그 예측이 정확했다.

### ● 하나님의 주권

길게 보라! 더 왼쪽이 되어라. (민주 엘리트에 경고) 극단은 변혁인가? (작용과 반작용)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소망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라!

# 친환경 도시 스웨덴의 ‘말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일까? 가장 쾌적한 도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찬사를 듣는 곳이 있으니, 그곳은 바로 스웨덴의 ‘말뫼’라는 도시이다. 말뫼는 도시 전체가 재생 에너지 100%를 실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친환경 도시로 유명하다.

원래 말뫼는 1980년대까지 세계 조선업계의 강자로 군림했었다. 그러나, 조선업의 주도권이 빠르게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권으로 넘어가면서, 말뫼는 도시의 경제 사정이 극도로 나빠졌다. 말뫼에는 조선업을 위한 ‘코쿰스 크레인’이라는 초대형 크레인이 있었다. 코쿰스라는 회사는 1987년에 파산했고, 코쿰스를 인수한 BWS라는 회사도 역시 열악한 자금난으로 파산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BWS는 대형 ‘코쿰스 크레인’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 크레인을 인수한 회사가 바로 현대중공업이었다.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초대형 크레인의 매각 가격이 단돈 1달러였기 때문이었다. 현대중공업은 크레인 가격으로는 1달러만 내고,

대신 해체와 운송을 모두 자기 비용으로 부담키로 했다. 크레인을 해체하고 스웨덴에서 한국의 울산까지 운송하는 데 든 비용은 약 220억 원이었다. 2002년 9월 25일 도시의 자존심인 코쿰스 크레인이 1달러에 해체될 때, 말뫼 시민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스웨덴 국영방송은 그 장면을 장송곡과 함께 내보내면서 ‘말뫼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말뫼는 조선소가 문을 닫자 도시 인구의 10%인 2만 7,000명이 거리로 내몰리는 수난을 겪었다. 그랬던 말뫼에 스웨덴 정부는 우선 말뫼와 덴마크 코펜하겐을 바닷길로 잇는 7.8km의 다리를 건설했다. 대규모 공공투자로 실업자를 흡수하고,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City of Tomorrow’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말뫼는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인 ‘SURE(Sustainable Urban Revitalization of Europe)’와 신재생에너지 도시계획인 ‘RESECO(RES Energy

Concept)’를 통해 도시재생에 돌입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역 건물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말뫼시는 버려진 항구와 공장지대를 환경친화적으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조선업을 위해 썼던 재원을 신재생에너지와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현재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태양열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다. 이 덕에 말뫼는 유럽을 대표하는 생태 도시로 탈바꿈했다.

말뫼에는 친환경 주거단지 ‘Bo01’이 있다. ‘Bo01’ 지구에 개발된 주택을 살펴보면, 각 지붕 모퉁이에 빗물이 내려오는 수로를 만들어 빗물을 지하 탱크에 모아 다시 생활용수로 사용하거나 조경수로 사용한다. 건물 옥상에 태양열판을 설치해 Solar Energy로 지역 내 난방 수요를 충당한다. 또한, 거주자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도록 친환경 교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거주지 내부에 자동차 도로를 없애고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지상의 도로는 보행자와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했다. 이 도시에서는 100% 신재생에너지로 시민들의 일상을 채운다.

스웨덴의 말뫼는 풍성한 매력 가득한 도시다. 눈부신 자연과 쾌적한 건물들, 중세 시대의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 여행자에게 선물 보따리를 가득 풀어준다. 말뫼에는 코쿰스 조선소의 대형 크레인 자리에 이제 ‘터닝 토르소’라는 고층 건물이 들어섰다. ‘북유럽에서 가장 창의적인 디자인의 건물’이라는 칭송을 받는 이 ‘터닝 토르소’는 최소의 탄소배출량과 최대의 효율적 에너지 관리로 그 명성이 드높다. 이제 말뫼는 유럽을 대표하는 친환경 에코도시로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중의 하나로 거듭났기 때문에 북유럽 여행에서 꼭 가봐야 할 최고의 명소로 꼽아야 할 것이다.

〈편집부장 Sophia Kim〉

“축” 성탄

**경산한의과병원**

원장 유재규

213-505-6747  
3030 W. Olympic Blvd. #202  
Los Angeles, CA 90020

“축” 성탄

**지글지글분식**

대표 이창록

213-674-7492  
3500 W. 6th St. #228  
Los Angeles, CA 90020

“축” 성탄

**소반 (한식당)**

대표 박영희

323-935-9106  
400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 LA민주진보단체연합 계엄반대 윤석열 탄핵 촉구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항의하는 로스앤젤레스 지역 민주 진보 세력 단체 한인들이 12월 3일 정오부터 1시간여 동안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가졌다. 재미동포 목회자연대의 김기대 목사님의 발의로 시작된 집회에서 거룩한 선교이야기 언론사, 미주종교평화 협의회, 내일을여는사람

들, LA촛불 행동, 해외민주통일연대, 한얼연구소, 한미평화포럼, LA 5.18 기념 사업회 등 민주 진보 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문에서 언급된 헌정질서 짓밟기, 국가기관 교란, 내란 획책,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붕괴의 괴물은 바로 윤석열 본인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한인

약 30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 “민주주의 파괴하는 윤석열을 체포하라”, “일편단심 윤석열 퇴진”, “윤석열의 무지, 무능, 무도를 고발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소리를 외치며 윤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시위에 참석한 인사들과 일반인들은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정권의 정책과 행동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윤석열 정부의 결정이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내일을 여는 사람들의 이은경씨는 “새벽부터 계엄 소식에 잠을 깨고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성을 잃고 현 한국

의 정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어떤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고, 이로 인해 한반도에 전쟁이라도 일어날까 심히 두렵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평화협회 정성업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또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하고, 대한민국은 1등 국가가 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꼴등 국가로 만들어 버렸고 세계적으로 조롱 받는 정치인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웃음만 나온다.”라며 하며 헛웃음을 지었다.

캘리포니아 주의원으로서 활동하다 연방하원 의원에 당선된 데이브 민 당선인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반대 의견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경쟁자를 단속하고 반대 의견을 억누르려는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활기찬 민주주의에 위협이 됐다”고 비판했다.



# 캐런 배스 LA시장 한인타운 찾아 한인타운의 중요성 강조



로스앤젤레스 한인상공회의소는 2024년 11월 20일 오후 4시 아로마 센터 5층 홀에서 캐런 배스 LA 시장 초청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LA 한인 커뮤니티의 주요 인사들과 상공회의소 이사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참석자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상업적 기회 확대, 그리고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자신이 시장이 된 후 2년 여 만에 노숙자 숫자는 10% 감소 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코리아타운의 공공 치안 문제가 한인들의 주거 안전과 사업체의 번영을 위해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올스타 배스켓볼게임, 2026년 월드컵과 2027년 슈퍼보울게임, 2028년 올림픽 경기를 위해 깨끗한 글로벌 도시의 면모를 갖추겠다고 하였다.

# 일론 머스크 화성 이주 계획은 성공할까?

트럼프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할 수 있었던 일등 공신은 단연 일론 머스크로 그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머스크는 2016년 2026년까지 화성에 인류를 100만 명 이주시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그 계획에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스티븐 호킹은 “인류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안된다.”는 말로 인류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으로 살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화성을 선점하는 자가 미래에 우주의 패권을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세계 각국은 화성 탐사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2032년 우리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고 선언했을 정도로 화성 탐사가 인류의 최대 급선무로 여겨지고 있다.

머스크가 화성에 지구인들을 이주시키려는 이유는 핵전쟁이나 슈퍼 바이러스 등 지

구에서 인류가 살 수 없는 환경에 대비해 화성에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어 태양계 행성 중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첫 후보를 화성이라고 본다. 머스크가 개발하고 있는 화성 왕복 우주선의 이름은 스타쉽(starship)인데, 100톤 이상의 화물과 승무원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화성 이주계획 후기 10년 동안 해마다 100개의 스타쉽을 만들어 모두 1,000개가 완성되면 화성에 100만 명을 이주시킨다는 것이 머스크의 꿈이다. 머스크는 스타쉽을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비유하였다. 소행성의 충돌 또는 기후 위기로 파멸에 처한 인류가 스타쉽을 타고 화성으로 이주하여 문명을 이어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화성은 자기장이 약해 태양풍에 의해 대기가 쓸려나가 대기의 밀도가 매우 얇다. 화성 대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고 산소의 농도는 0.2%에 불과하다. 지구 대기의 산소농도는 21%다. 그

러므로 인간이 화성에 간다면 달에 간 우주인들처럼 우주복을 입고 산소통과 산소마스크를 꼭 써야만 살 수 있다. 화성의 평균 온도는 섭씨 -60도 정도지만, 가장 낮을 때는 섭씨 -150 이하까지 떨어진다. 인류가 이런 강추위를 견뎌낼 수 있을까? 또한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1/3에 불과한 것도 문제를 일으킨다. 인간의 몸은 지구의 중력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중력이 작으면 뼈와 근육이 약해져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화성에 쏟아지는 우주방사선은 지구의 50배에 달하므로 인류가 닷을 내리기에 절대적으로 나쁜 환경임에 틀림이 없다. 가장 중요한 식량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머스크는 구체적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수경재배를 제안하였다. 지구에서처럼 흙을 사용하는 농업이 아니고, 화성에 온실을 건설해 물과 수용성 영양분이 담긴 특정한 배양액 속에서 식물을 키우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온실재배 방법이 과연 생

산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과학자 다수의 의견은 수십억 년에 걸쳐 누적된 지구 생물권을 우주 밖 다른 곳에 그대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화성의 기후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쉬울까,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쉬울까? 대답은 지금의 지구에서 불모지의 영역을 개발하는 것이 화성 이주 계획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 더욱 현실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영국의 저명한 우주학자이자 천체물리학자 마틴 리스 케임브리지대 명예교수도 “일론 머스크가 추진 중인 화성 이주 계획은 망상”이라고 일갈하였다.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목소리는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물리 법칙과 과학 이론을 무시한 그의 계획은 공허하다. 그는 “우리 모두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강변했다. 머스크와 세계 으뜸 부자를 다투는 빌 게이츠는 BBC와 인터뷰에서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성 이주 대신 백신 개발에 돈을 써라”라고 머스크를 비판했다.

“축” 성탄

**KEVIN H. JANG**  
A Law Corporation

대표 케빈장 변호사

213-221-1188  
3435 Wilshire Bl. #2300  
Los Angeles, CA 90010

“축” 성탄

**CHARLES JEONG, CPA**

대표 찰스 정 회계사

213-221-4113  
3255 Wilshire Bl. #1717  
Los Angeles, CA 90010

“축” 성탄

**벤자민건축기술학교**

교장 모종태 장로

213-909-2005  
3400 W 6th St #200  
Los Angeles, CA 90020

## AI 예술품과 저작권 인정 여부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예술작품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바야흐로 'AI 예술작품' 전성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에 따른 AI 예술품의 저작권 논쟁이 세계 각국의 문화계에 분출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AI 예술품의 저작권 인정 여부의 현주소는 기계에 의한 작품은 저작권이 있을 수 없고, 인간의 창의성이 들어간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선 우리의 고국인 한국의 예를 살펴보면, 안창욱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개발한 AI 작곡가 '이봄'(EvoM)이 곡을 쓴 노래 '사랑은 24시간'은 가수 홍진영이 불러 2021년 2월에 공개되어 공전의 히트를 친 노래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 작곡 사실을 후에 확인하고 이봄에 대한 저작권을 취소하고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했다. 저작권 협회는 '창작물'이 아닌 '산출물'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AI가 만들어 낸 음원을 창작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AI 작곡가의 저작권을 부정했다.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타일러'는 2018년 AI창작기계(Creativity Machine)를 개발했다. 타일러는 자신의 AI 기계가 생성한 작품 '파라다이스로의 최근 입구(A Recent Entrance of Paradise)'라는 미술품의 저작권을 인정받고자 미국 저작권청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저작권청은 "해당 작품의 경우 창작 과정에 인간의 개입보다 AI의 능력인 자동 생성 기술의 Drawing영향력이 더 컸다"고 판단하고 그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하였다.

한편 AI 기술을 활용한 미국 만화 '새벽의 자리아(Zarya of the Dawn)'는 '대사, 구성과 편집'에 대한 '부분적인 저작권'을 인정받았다. 저작권청의 판단은 비록 그림 제작에 AI를 활용했지만, 이를 배열, 배치하는 구조를 만든 아이디어는 작가의 창의력이 들어간 독창적인 예술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저작권 등록은 할 수 없어도 인간의 창의성이 들어간 경우에 한해서는 '편집 저작물'이라는 명칭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위의 사례들은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결국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저작권'만을 인정할 뿐 자체적인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AI 예술작품이 대량 생산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와 비슷한 법적 논란이 세계 곳곳에서 부단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AI의 기계적인 편집이고 어디서부터가 인간의 독창적인 예술혼이 담긴 창작의 과정인지"를 구분 짓는 경계선인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AI 예술품의 저작권의 가이드라

인을 통해 그나마 부분적인 저작권을 인정받는 '편집 저작물'으로서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미술 분야의 경우 관련 AI 기술은 보통 이미지 알고리즘 기법을 주로 쓴다. 사람은 프롬프트(명령)로 정보를 지속적으로 AI에 제공하고 명령어에 따라 AI는 수천~수만 번 반복하며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인간은 수많은 정보 요소를 제공하며 딥러닝(Deep Learning)을 통해 AI 예술품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 한 전

문가는 이런 과정에 인간의 독창적인 노력이 무한히 투여되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를 '창작'으로 보고 또 하나의 '저작권'으로 인정하자는 개념을 내놓았다.

생성형 AI가 출현하여 예술품을 제작하면서 저작권을 얻기 위해 AI 프로그램에 얼마나 많은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미 저작권이 있는 기존 예술품에서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AI 예술작품의 저작권과 독창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더욱 가열될 것이고 한동안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따뜻하고 밝은 곳 주님 계시신 곳이니

-주님 오신 성탄절에-

시인 석정희



이 세상 구원은 하늘에 있네  
동방박사 세사람 그것을 알고  
하늘에서 별 내려 잠든  
말구유 찾아 경배 드렸네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  
따뜻하고 밝은 곳으로 다듬기 위해  
십자가 고난 아시며도 이 땅에 오서  
우릴 위해 이웃사랑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사흘만에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광 보게 하시려  
낮고 천한 마굿간에 오셨네  
천하고 죄 많은 우릴 구원하시려  
가난하거나 부요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모두에게 고루고루 은혜 베푸시고  
교만은 용서하시고 낮아져서  
섬김 받기보다 섬기도록 본 보이신  
예수님 낳신날 이 날을 기뻐하세 찬양 드리세

# 기독교인의 노년 건강 관리법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  
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하는 것  
이 성경의 근본원리이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건강은 하나님  
의 율법과 뜻에 따라 잘 관리되  
고 있을까? 특별히, 노인건강  
에 적신호가 켜지는 현대사회  
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  
야 할 건강비법들을 알아보자.

노후에 성인병이나, 치매,  
알츠하이머, 심질환등의 병으  
로 고생을 하게 되는 기독교  
인들은 우선 자신이 하나님께  
로부터 별을 받거나 버림받아  
서 병에 걸렸다고 하는 신앙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이때 주  
변에서는 그 사람의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의 습관  
을 정죄하기보다 그러한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  
고 힐링 하신다는 신앙심을 일  
깨워 주는 것이 좋다.

잠언에는 신체적, 정신적 건  
강에 관한 우리 주 하나님의  
보배로운 비밀이 담겨있다.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  
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  
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잠 3: 1~2)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  
느냐”(잠 18:14) “선한 말은 꿀  
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잠 16: 24) 말  
씀이다. 잠언의 말씀들은 우리  
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다.

한국의 서울아산병원 노년내  
과 의사 정희원 교수는 대부분  
의 현대인이 ‘가속노화’에 빠져  
있다고 진단한다. 급속한 노화  
현상으로 30~ 40대라 하더라도  
신체나이는 60대와 같은 사람  
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하면 아무리 부유해도

매일 술과 담배를 하다가 이른  
나이에 뇌경색이나 치매가 오  
면 곧바로 노쇠 상태로 전락하  
게 된다는 것이다. 정희원 교  
수는 이러한 ‘가속노화’를 막  
기 위해서 ‘느리게 나이 들기’  
를 권장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4M’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동성(Mobility), 마음건  
강(Mentation), 건강과 질병  
(Medical issues), 나에게 중요  
한 것(What Matters)이고, 나  
에게 중요한 것이란 전반적 노  
화 정도와 내 삶의 목표, 커리  
어, 자산, 취미, 가족 등을 모두  
포괄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동성’에 있어서 근육의 전  
반적인 균형과 연결성을 잃어  
버린 상태에서 특정 운동만 고  
집하면 오히려 몸이 더 악화된  
다. 그래서 맨몸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  
는 것이 좋다.

발레나 요가, 필라테스, 태  
극권 등 코어를 중심으로 하

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인들이 운동을 싫어하고  
스마트폰만을 보면서 앉아있  
기를 고집하는 것이 노년 건  
강에도 치명적이라고 정교수  
는 지적한다.

또한, 노년의 환자들이 병원  
을 찾았을 때, 이미 여러 병원  
들을 전전하고 약물을 다량 처  
방받아 몸이 더 악화되는 ‘약  
물 연쇄 현상’에 빠지기 쉽다  
고 말한다. 평소 복용하는 약  
이 5개 이상이라면, 다니는 병  
원과 사유, 처방받은 약 목록  
을 만들어 의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약물 연쇄 현상’  
으로 약을 복용하면 할수록 병  
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먹  
은 약 때문에 병이 생기는 ‘약  
이 병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한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  
고, 앓은뱅이에게 일어나 걸으  
라하고, 귀신들린 자들과 병자  
들을 고치셨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노년 건강을 지  
키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 JUNG MEDICAL CLINIC

# 정 병 원

30년째 한인타운에서 진료하고 있는 정만길 박사(MD)는  
환자들을 제 부모님처럼 친절하게 모셔 드립니다.

완벽한 최첨단 장비와 의술로 암을 조기 발견하고, 고혈압 중풍,  
심장병 등 성인병을 비롯한 각종 내과 진료로 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Tel: 323-766-1057  
3511 W.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19

## KTGN 설립 제안과 한민족의 장래

우리 한인들은 현재 약 700만 명이 지구촌에 흩어져 산다. 북미주에만 2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그 중에 크리스천이 100만 명이나 된다. 한국인과 한국문화는 K-pop, K-sport, K-food, 한글, 한국영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글로 쓴 소설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경사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문화를 통한 세계인의 한국선호와는 반대로 아직도 우리에게는 극복하고 치루어 내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한국이 세계인들의 호평을 받고는 있지만 솔직히 필자는 아직도 숙제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개학날이 다가오는 학생의 마음 같은 미진함이 있다. 그 미진한 마음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확립과 정부의 형성, 경제발전의 지속과 분배의 형평, 정도를 걷는 언론의 역할 확보, 경쟁 입시교육으로부터 전인교육, 창의교육, 무상교육으로의 전환, 그리고 민주국가를 견인하고 비민주적 정권을 견제할 기독교 리더십의 확립, 남북분단의 청산과 평화통일 단일국가의 회복 등의 숙제를 남겨 두고 이를 우리 세대에 마무리하여 차세대에 나라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된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한 가지는 아직도 우리 한인 사회는 신뢰 소사이어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 삭스는 한국이 2050년에 독일과 일본, 이스라엘을 제치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위의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전망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 전망이 현실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숙제들을 온전히 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 신뢰, 믿음을 우리의 자산으로 확보하고 구축할 그릇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민사회가 독일과 일본의 기술을 이기는 신뢰, 이스라엘의 자본을 이기는 믿음, 미국을 본받는 신용사회를 이루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도리스 메르틴은 '아비투스'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 7가지의 자본, 즉 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그리고 사회자본을 가진 개인과 사회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자본이라고 제시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성경은 영적 자본, 즉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신뢰자본을 제1의 자본으로 갈파하고 있는 것이다. 신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기쁘게 한다. 기독교 선진국의 모든 발전과 부강과 번영은 정직과 신뢰라는 자본을 기초로 이룩한 성취이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아우슈비츠의 학살을 저지른

악을 회개하는 데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오늘의 EU를 이끄는 경제 강국이 되었다. 일본은 기술입국으로 한 때 세계에서 부흥하였으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음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정직과 신뢰자본이 있는 국가임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핍박 속에서 이 천 년 만에 국가를 다시 세우고 미국의 금융자본을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졌으나 유대인들이 돈을 제일로 추구하는 것을 넘어 세계를 상생과 평화의 세계로 이끄는 신뢰자본을 가진 나라임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이 점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돈을 추구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다시 당선된 트럼프즘과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들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우리 세대의 숙제를 해결하고 차세대에게 온전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해결책을 실행할 기구와 운동으로서 가칭 KTGN (Korean Trust and Giving Network)의 비전을 함께 나누며 그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KTGN의 형태는 기독교 신용협동조합이나 사단법인 형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기구를 이끄는 정신은 1R 3S 즉, Reflection, Self-reliant, Solidarity, 그리고 Sharing에 기초한 한민족의 장래를 열어가는 자립과 연대와 나눔의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트럼프 2기의 불확실한 미래를 대하는 우리의 대안으로 필자는 USA미래포럼에서 첫째, 우리의 한국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Reflection), 둘째, 지방자치 거버넌스와 독립운동에 나타난 바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 자주정신(Self-reliant), 셋째, 거대자본에 휘둘리는 노동자들과 약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과 중산층의 연대, 북미 크리스천의 선교와 나눔의 연대(Solidarity), 넷째, 청지기 정신에 기초한 기부와 나눔의 정신(Sharing)으로 대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KTGN이 설립되면 700만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재산을 자식에게만 물려주고, 교회까지 세습하는 천민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원과 재산은 하늘로부터 잠시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이라는 자각에 기초하여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신용협동조합에 출자하고 배당받은 이익금의 10%를 기부하고, 궁극적으로는 전 재산을 하나님의 선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공헌선교에 기부한 후 천국에 감으로써 온 세계에 복을 끼치는, 크리스천 유산기부 운동의 커다란 그릇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송영우 박사  
Global Blessing Mission 대표

# 도산의 '거짓 망국론'

평안남도 대동강 하류 도룡섬에서 태어난 도산 안창호는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을 나이 16세 때 경험하고 평양에 진주한 청나라 군대와 일본 주둔군을 보고 “조선에 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각성하고 서울로 공부하러 갔다. 언더우드가 세운 구세학당에서 신학을 배우고 기독교 교리를 배웠다. 실업 교육도 받고 민족 자본을 육성하여 주식회사와 공장을 설립해서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구세학당의 후신은 연세대학교이고 훗날 도산은 연세대학교 명예 졸업장을 받게 된다.

도산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서재필인데, 그는 배재학당 강사로 토론을 하는 협성회를 조직하고 시국토론을 통해 계몽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서재필은 1896년 ‘독립협회’를 결성했고, 도산은 19세 때 ‘독립협회’에 가입한다. 안창호는 쾌재정 만민공동회의 특별한 연사로 활동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도산에게 큰 영향을 끼친

책은 1895년에 개화기의 사상가인 유길준의 ‘서유견문’이다. 서양, 일본, 유럽, 미국의 제도와 문물 소개하고 조선의 개혁 방향 제시한 책으로, 도산은 서유견문을 읽고 서구 문명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는 “조선의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점은 조선 실정에 맞게 고치겠다”는 점진적 개혁을 부르짖었다.

도산은 한문과 유학 공부를 하였고 ‘협성회’를 통해 독립운동가의 길을 걸었다. 1913년 5월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민족운동단체 흥사단을 설립했다. 기본 정신은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이었으며 단체의 상징은 기러기였다. 이후 흥사단은 3.1 운동, 수양동우회 사건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독립운동에 기여했다. 흥사단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을 거점으로 하여 활동 중이다.

도산 정신의 첫 번째 순서로 ‘거짓망국론’을 알아보자.

도산 선생은 정직을 목숨

보다 귀하게 여겼던 철저한 원칙주의자였다. 그는 우리 민족의 잘못된 습성을 ‘거짓말’과 ‘거짓 행실’, 즉 정직하지 못함이라 잘라 말했다.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등 독립운동을 위해 시작됐던 여러 결사 조직들이 3년 이상 지탱하지 못한 것도 횡행한 거짓으로 서로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도산이 고국에 돌아와 평양에 세운 대성학교의 교육목표 역시 ‘정직’이었다. 그는 늘 학생들에게 “생도의 가장 큰 죄는 거짓말과 속이는 일이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고 강조했다. “농담으로라도 거짓을 말아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는 그의 말은 선생이 얼마나 정직을 중하게 여겼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도산은 대성학교 학생들에게 항상 ‘거짓말 하지 말자’하여 참되기를 가르쳤다. 한번은 한 학생이 결석계를 제출했는데 남의 도장을 슬쩍 찍고 비벼서, 선생님을 속이려 하였다.

도산은 그 학생에게 엄한 벌을 주면서 “이것이 비록 작은 일 같지만 우리 대성학교의 정신에 어긋나는 짓이니, 박절하지만 중벌을 줄 수밖에 없소. 이런 정신으로 공부를 한다면 세상없는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소, 우리 대성학교에 이런 학생이 있다는 것으로 부끄러운 일이지요,”라고 말하였다.

또한 약속을 지키는 일, 시간을 지키는 일도 무실 정신이라 가르쳤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던 도산은 독립운동으로 체포돼 일본 형사 앞에 섰을 때도 당당했다. 활동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일본 형사의 질문에 안창호 선생은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먹었고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잤다. 대한의 독립은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나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답했다.

그리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의 독립을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은 반드시 독립할 것”이라고 말하며 깊은 신앙심을 드러냈다.

〈편집부장 Sophia Kim〉



“축” 성탄

**K·HISTORY**

대표 김 환 단

213-500-4987

매주 수요일 6pm 역사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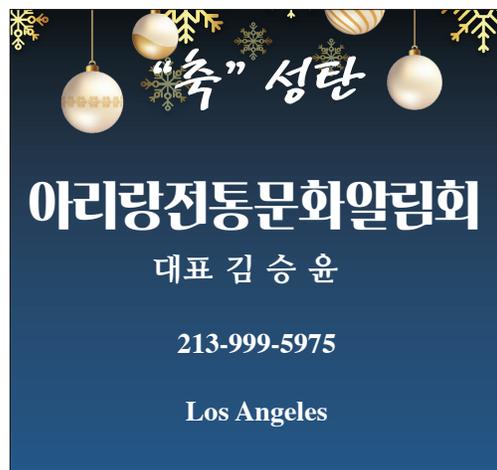
“축” 성탄

**미주탈북민협회**

대표 전 해 정

213-247-3444

505 S Wilton Pl #118  
Los Angeles, CA 90020



“축” 성탄

**아리랑전통문화알림회**

대표 김 승 윤

213-999-5975

Los Angeles

## 도산 Legacy 운동 (도산신보)

도산 Legacy 운동은 미주한인들(Korean Community)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받은 '거룩한 선교이야기사'의 사명이다. 매월 '거룩한 사명'의 '도산신보'란에 그의 정신계승 운동을 펼쳐나가겠다.

### ● 거짓망국론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야,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말아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 ● 무실역행(참되게 힘써 실천함)

“정직과 성실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 ● 실력양성론/교육입국론

“교육으로 스스로의 실력을 갖추는 때 개인이든 나라이든 스스로 자립한다.”

### ● 대공주의

“공과 사를 가르시오. 공과 사중 한쪽을 굳이 희생해야 된다면, 사를 희생해야 합니다.”  
“개체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개체를 위하여.”

## 신용 운동 (Credibility Movement)

이민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받은 응답은 '신용쌓기운동'이었다.

이는 '이민사회변화연구소'의 사역이었으며

'세계선교사연합회'의 주력 사역이었던

'생활선교사' 프로그램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신용본위의 '비즈니스'를 행해도 더 잘되는 비전이다.

신용업소(사업체)와 신용인을 선정하여

패 혹은 깃발로 업소에 부착하도록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신뢰할 만한 사람,

개인 개인을 만드는 일이다.

**문의 213.559.7500**

## 자동차 기부운동 (Car Donation)



전기자동차(EV)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바꾸거나, 폐차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또한 증대되는 노인인구에 따라 소유했던 차들을 그만 정리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한 어른들이 많이 있어 도움의 손길이 되고 싶은 것이다.

더 높은 가치는 기금이 마련되면 이 기금으로 선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다.

기부가 이루어지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드리고, 세금 공제도 가능하다.

**문의 213.559.7500**

## 거룩한 선교이야기 청소년 기자단 모집 (HMS Youth Reporter Club)

2025년 봄학기

고등학생 1기 / 중학생 1기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학교, 봉사단체, 커뮤니티, 사회적 이슈 등 자신의 관심 분야 기사를 작성하여,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증대시키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그 기초를 만들어 드립니다.

작성한 기사나 논평, 칼럼 등은 선별하여 월간 '거룩한 사명'지에 영문으로 게재되며, 웹사이트에는 즉시 올려 시사성을 보장합니다.

수습기자 교육과 저널리즘 강의 등은 전문 교수가 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수료증과 기자증을 발부하게 됩니다.

대학과도 연계하여 필요한 과목도 미리 들을 수 있게 합니다.

**문의 213.559.7500**